

개인무빙 보고서

김산아

참여한 단체

-누리꿈터 덕산지역아동센터

누리꿈터는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꿈터 선생님들

권호정(담당자), 김미애, 도수경, 조윤경, 유현영(산 밑 나래 지도교사), 이다은(베트남 수업 지도교사)

기간

6월 3일 ~ 6월 24일

나의 역할

-행정업무: 교사 업무 보조 등

-시설 안전관리: 위험물질 확인. 시설파손 확인. 소화기 위치 확인. 전등 등 고장확인

-시설 환경관리: 시설 청소업무. 학습재료, 도서정리. 정원 관리

-아동관련 업무: 출석체크. 체온재기. 귀가체크. 프로그램 사진촬영 및 공유. 프로그램 진행 보조

-급식보조: 상담기. 가림막 소독, 설치, 제거

-개별아동과 함께 활동

-놀아주기 (보드게임, 대화 등)

보조 교사로 참여한 수업

1. 산 밑 나래 (매주 화요일)

지역 내 방치된 공간을 아이들의 창작놀이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독특한 재료를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한다.

2. 베트남 수업 (매주 목요일)

베트남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며 아이들이 베트남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평

그리 고된 일은 없어서 그런지 꿈터에서 적응이 꽤 빨랐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가까워졌고, 꿈터에서의 업무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생활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아동을 돌보는 일인 만큼 매일 정신이 곤두서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힘겨움을 잊고 힐링 겸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이 일이 매우 보람찼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선생님의 역할을 잘 해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다소 크게 느껴진다. 솔직히 선생님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언니 혹은 누나에 더욱 가까웠던 것 같다.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난감한 순간이 닥치면 미숙하게 대처했던 태도가 매우 반성되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최대한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인지 꿈터쌤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 외의 별 탈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답지 않은 면모를 보고 실망했을까봐 겁이 나기도 한다. 그래도 열과 성을 다했던 순간들이 헛되진 않은 건지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친근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이였다.

그리고 주어진 무빙기간이 거의 다다를 쯤에 깨달았던 건, 서로를 알아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을 완전히 붙이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린 아이들도 처음에만 조금 놀랄 뿐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고, 마지막 날에 울거나 온 힘을 다해 아쉬움을 표하는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점이 전혀 아쉽지는 않고, 오히려 그 덕분에 안심하며 이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은 내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원하게 물어보고, 같이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내게 권유하고, 자신이 겪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내게 전하는 것처럼 끝까지 평소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 편히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

소감

무빙을 시작하기도 전에 긴장감이 어깨를 눌렀다. 어린이를 다룬 책을 읽은 걸 제외하고는 아동에 대해 공부해본 적도, 오랫동안 아이를 만난 적도 없는 내가 교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무척이나 떨렸는데, 다행히 아이들 모두가 거리낌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무빙 첫날 퇴근하기 전, 쌤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 나만 노력했다면 그렇게 금방 사이가 좁혀질 리 없었을 테니까. 관심을 관심으로 보답한 아이들 덕분에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꿈터 수업에 보조로 참여했을 때도 기억이 난다. 가끔씩 나도 초등시절에 했을 법한 학습활동을 할 때면 그 시간이 반갑고도 왠지 모르게 새삼스럽게 와 닿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배움의 길이 점점 난해해져서 그런지 내게는 꿈터에서의 단순한 수업이 낯설게 다가왔던 것 같다. 동시에 지금의 아이들과 별다른 것 없는 수업이나 체험을 경험했던 시절이 그리웠기도 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지금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참여했던 것 같다. 어른이 되어가는 내가 잠시나마 아이들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

이번 무빙은 이전처럼 모두가 한 곳에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혼자서 계획하고 시행해야한다는 점에서 꽤 부담감이 컸다. 무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물론 그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지도 염려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순조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안식처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오랜 벗처럼 거리낌 없는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만난 게 이렇게 큰 행운일 줄 몰랐다. 정말 나와 잘 맞는 단체였기에 개인무빙을 이곳에서 보낸 게 다행이었다. 같이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빠져드는 순간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면 누군가를 마주할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오던 긴장이 수그러들었다. 심지어 여태껏 또래나 동생보다 어른과 같이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여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 앞에서 웃고 말하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 그다지 어렵게 느

껴지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떨리곤 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터득한 것도 같다.

근 한 달 간 학교에서의 나와는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이번 무빙은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나를 바꾸러 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이전처럼 되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여럿과의 관계를 위해 용기를 내고 열렬했던 순간을 남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무빙이었다. 그렇게 무빙을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꿈터 선생님들, 알차고 수많은 추억을 남겨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남은 몫은 인간관계에 응의하는 마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뿐이다.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6월2일 / 10:00~18:2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꿈터 선생님들과 면담(주 내용: 나의 무빙에 관한 목표, 조언 듣기, 질의응답 등). 나를 소개하는 짧은 글 적고 게시하기.</p> <p>오후: 노래 연습 도와주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출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모두 만나보지 못함. 일지 쓸 노트북을 두고 와서 퇴근을 조금 일찍 함.		
소감	<p>전날에 잠을 푹 자지 못했는데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다가와서 정신이 그리 몽롱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 아이들이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를 품기도 했으며, 이따금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조언이나 참고하며 읽었던 책 속 문장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준비했던 것 같다.</p> <p>출석하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첫인사를 나눴을 때, 아이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낯설어 하는가싶더니 다행이도 다가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면 반가이 화답했고 먼저 놀자며 다가와준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밀해진 것도 같다. 물론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맞닥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겪은 혼란보다 새로 만난 사람 입에도 기꺼이 반겨준 아이들을 향한 고마움이 더 컸다. 덕분에 첫날은 부담을 톡 놓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p> <p>덤으로 처음이라 아이들에게 대처를 잘 못하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찌나했는데 의외로 쌤들은 잘했다며 칭찬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오전 활동은 똑같은 것 같고, 치과를 가야해서 아쉽지만 도중에 조퇴할 것 같다...ㅠ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가짐, 노트북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6월 3일 / 10:00~15:15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p> <p>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p>		
특이사항	치과를 가야해서 3시 15분에 퇴근		
소감	<p>어제 다 만나보지 못한 학생 중 두 명을 만났다. 두 친구와 즐겁게 대화도 나눠보고 보드게임도 했는데 아쉽게도 치과를 예약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니 아쉬움이 배로 느껴진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유현영쌤과 '산 밑 나래'수업 참여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6월7일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택배 공급된 급식 재료 정리. 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산 밑 나래'수업 보조 참여 (압화 만들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이번에 만난 새로운 얼굴,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유현영쌤의'산 밑 나래'라는 수업을 참여했다. 이번 수업은 압화 만들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덕산을 돌아다니며 꽃을 찾기 바빴다. 나는 동시에 산책도 하는 기분이라 내가 아이들보다 들뜬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 옆에 서서 도와주거나 예쁜 꽃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일도 괜스레 뿌듯했다. 무엇보다 길을 지나면서 아이들과 잦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 보는 아이와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니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애들이 내 노트북 가지고 장난치게 하다가 고장 날 뻔;;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6월 8일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예방 영상보기.</p> <p>오후: 화병에 꽃 꺾어서 담기,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딸기 따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오늘은 정말 놀아주기 바빴던 것 같다... 나랑 마주치는 아이들마다 보드게임을 제안해서 나만 너무 노는 게 아닐까 싶어 쌤들에게 눈치 보일 정도로... * (그러나 미애쌤도 애들과 같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난 하루랄까?</p> <p>그리고 호호장 때 춤으로 공연한다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춤이랑 멀어진지 오래인 상태라 걱정이 앞섰지만 피드백 받는 위주로 한다고 하니 근심을 덜기로 했다. 물론 나도 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안무를 외우기로 했다 *</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베트남어 수업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여자)아이들 - '틈보이' 안무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오후: 아이들에게 알려줄 톰보이 안무 복습.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베트남 수업(베트남 제기차기, 베트남어로 가족 구성원 배우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하루 종일 톰보이 안무 복습하느라 땀이 흥건했다... 다행이 전곡을 추는 게 아닌데다 안무가 그리 어렵지 않아서 빨리 터득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춤을 안 쳤다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 *</p> <p>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오랜만에 베트남식 제기차기를 해보았다. 근데 탄력이 남다르다... 한 번 무릎으로 차면 어느새 전방 2미터다. 이걸 4번 차는 아이들도 참 대단하다.(참고로 나는 2개가 최대ㅋ) 제기차기로 팀을 나눠 내기까지 한 후 베트남어로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법을 배웠다. 베트남어로 오빠가 '아잉'이라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 내내 "아잉~"거렸던 점이 매우 웃겼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오늘 베트남 과자 먹어봄!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오늘은 정말 실습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보드게임 삼매경에 나셨다. 애들이 마주칠 때마다 보드게임을 제안해서 아이들의 에너지에 겨우 끌려 다녔다... 한 게임이 끝나면 또 다른 게임을 들고 오고..., 또 끝나면 다른 게임을 들고 오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계속되자 저녁 시간이 될 즈음엔 정신이 멍해있었다*... 그래도 처음 보는 게임들도 많이 접해서 보드게임 마스터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할리갈리는 넘사벽이 너무 많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아이들이 연습하는 춤 도와주러 감(주말에도 시간 내는 걸 보면 열정이 대단하다.), 치과에 예약 잡혀있어서 오전에 자리 비울 듯</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p>컴터에서 나누어준 손목시계 받음 (벗꽃 시계*)</p>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치과 갔다 오느라 자리 비움</p> <p>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꽃 배치하기, 딸기 따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한 아이와 화병에 꽃을 꽃을 꺾으러 화단에 갔다. 근데 예기치 못한 벌과의 사투를 벌였다... 몸통이 시커멓고 큰 게 언제 쏠지 몰라서 꽃꽂이를 목숨 걸다시피 했다. 힘겹게 얻은 꽃은 예뻐다 *</p> <p>오늘도 특별한 수업은 없는 하루였다. 사실 나는 처음엔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실습 선생님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드게임 담당선생님이 아닐까.. *(그렇다고 꿈터쌤들은 애들과 만나서 보드게임 안 한다는 건 아님)</p> <p>저녁을 먹기 전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애들이 내 긴 머리에 관심을 쏘더니 묶고 땀고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 옛날에 친구들이 내 주위에 둘러앉아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하나씩 땀아줬던 때가 떠올랐다. 이걸 데자뷰?</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구급함 정리, 커뮤니티 정원교육 강의 듣기</p> <p style="text-align: center;">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독서기록장 검사,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현영쌤이 아프셔서 ‘산 밑 나래’를 하루 쉬게 되었다.		
소감	<p>아침에 희석쌤이 들르셨다. 거의 한 달 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웠는데 안부 인사나 자잘한 대화만 나누고 헤어진 게 뭔가 아쉬웠다..ㅠ</p> <p>마실에서 푸르네 정원문화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했다. 중간중간 그 분들이 지내는 마을이나 집의 사진을 잠깐 봤는데 꽃이나 풀이 생각보다 엄청 무성해서 보는 순간 눈이 확 커졌다... 꽃집도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진 않을 텐데...</p> <p>아이들이 꿈터에 조금 들어찰 즈음 독서기록장을 쓰는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설명이라더니...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최대한 걸러내고 말해야 할 텐데 그걸 신경 쓰며 말하자니 설명하는 도중에 머리에 오작동이 걸렸다. 심지어 다섯 명이 한 명당 두 장씩이라 그 점을 떠올릴수록 어질어질 했다* * ㅠ 아이들이 기록장을 끝낼 때마다 나도 내심 후련했다. 기록장을 끝낸 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줬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선풍기 커버 씻기, 너덜너덜한 곳 글루건으로 붙이기.</p> <p>오후: 공기청정기 청소, 의자 나사 조이기,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딸기 따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청소를 평소보다 조금 많이 한 날이라 그런지(무엇보다 먼지가 쌓인 곳을 손보기도 해서) 종일 기관지가 걱정되었다. 그 외엔 별다른 특별한 활동이 없는 무난한 하루였다.</p> <p>덧붙이자면 오늘 하루 미애쌤 때문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ㅋㅋㅠㅈㅈ</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베트남 수업이돼야!!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신발장 청소. 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베트남 수업(베트남어로 숫자 세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아침부터 황당했다ㄸ... 꿈터로 갔는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근길을 기다리고 있던 건 신발장 청소인 듯 수리인 듯 청소였다...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나무판자를 다시 끼워 넣고서야 출근을 했다. 그리고 미애쌤이 장판을 잇는 테이프에 낀 때를 제거하는 청소를 하시길래 도와드렸는데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남은 구역까지 내가 다 싹싹 밀었다ㄸ</p> <p>오늘은 베트남 수업에서 베트남어 1부터 10까지 숫자를 배웠다. 아이들은 암기하기 위해 다 외웠나 싶으면 내게 검사를 맡았다. 그동안 아이들이 내 앞에서 좌절하다가 환희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려했다ㄸㄸㄸ 나는 가끔씩 힌트를 주기도 하면서 암기를 도와줬다.(베트남어로 9가'찐'인데 찐빵을 표현하려고"하얀 색 빵! 겨울에 먹는 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안에 팔들어있는 거!"이랬던 기억이..ㄸ) 그리고 분명 어제보다 오래 잤는데 가장 피로했던 하루였다. 그래서 수업 전 애들 앞에서 약간 조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업하는 걸 지켜보는 내게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놀리고 싶었는지 쌤이 이렇게 지켜본다며 귀신 쓰인 거 마냥 눈을 치떴다.(내가 언제 그렇게 봤어...) 중간 중간 눈웃음도 보였을 텐데 기가 찼다ㄸ</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3: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가벼운 청소(선풍기 닦기, 글루건으로 너덜너덜한 곳 붙이기, 액자 붙이기, 장판 잇는 테이프에 끈 때 제거)</p> <p style="text-align: center;">오후: 생리통이 심해서 조퇴했다.</p>		
특이사항			
소감	<p>생리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땐 좀 더 참아볼까 했지만 점점 악화되자 상태를 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탈까지 나서 고생을 좀 했는데 갑자기 탈진까지 와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계속 꿈터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부모님이 쉬는 날이라 곁에서 부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몸이 차차 건강을 되찾으며 잠이 들었다.</p> <p>저녁쯤에 일어났을 때 호정쌤의 문자를 발견했다. 애들이 날 찾았다는 문자가 눈에 들었다. 쌤들보다 꿈터에서의 경험이나 추억이 비교적 부족할텐데, 그럼에도 애들이 내 빈자리를 느꼈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미안했다. 같이 있을 시간이 짧아 애들과 하루만 못 만나도 아쉬운데, 애들도 같은 마음일까 조금 걱정된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p> <p>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화병에 꽃을 꽃 꺾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온종일 개인 무빙이 마지막 주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맴돈 날이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있냐는 몇몇 아이들의 물음에 이번 주까지라고 성심껏 답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론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ㅠㅠ 언제 또 만날 수 있냐는 물음도 선뜻 답해줄 수 없었다. 마지막 주가 들이닥치고 나서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지독히도 짧게 느껴졌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산 밑 나래’수업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관리 물품 사진 찍기 오후: 누리꿈터 간판 채색하기, '산 밑 나래' 수업 참여.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반갑게도 점심에 곤샘을 만났다! 웬일인지 곤샘도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인증샷도 있지롱) 점심을 먹고 난 후, 밖에서 누리꿈터 옛날 간판을 물감으로 채색하는 일을 했다. 현재 간판을 설비하기 전, 나무로 만든 간판이 있었는데 내겐 그게 더 익숙하지만 한 눈에 봐도 빛바랜 게 보였다. 바랜 부분을 덧칠하려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다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더위를 잊고 열중할 수 있었다. 동시에 무언가를 칠하는 일이 이토록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걸 깨달았다. 왜 드로잉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그 시간에 빠져든 것 같다. 후덥지근한 날씨임에도 하나도 고되지 않았다.</p> <p>일단 한 부분은 다 마치고 '산 밑 나래' 수업을 하러 갔다. 아이들이 지지난주에 압화로 쓰기 위해 얻은 식물들을 풀로 종이에 붙여 작품을 만들었다. 중간 중간 칭찬하는 것보다 만드는 도중에 망했다고 드러내는 아이들을 달래기에 더 애썼던 것 같다ㅋㅋㅋ 내 눈엔 다 하나같이 흐뭇한 작품이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오전에 치과를 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움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3: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오전: 치과 방문</p> <p>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이주기. 신체 결정권 교육,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호정쌤이 진행한 신체 결정권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들었다. 호정쌤은 결정권을 다룬 만화의 장면들을 일일이 보여주며 설명하셨는데 말투나 동작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모습이 생소하고도 다소 경이롭게 다가왔다. 그동안 수업에 미애쌤과 보조로 참여한 적만 있었고 호정쌤과 참여한 적은 드물었는데, 내게 개인무빙 담당자가 아닌 꿈터쌤으로써의 모습이 보였던 그 순간이 매우 인상 깊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베트남 수업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 누리꿈터 간판 채색하기. 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이주기. 베트남 수업. 저녁 식사 후 청소		
특이사항			
소감	<p>오전 내내 간판 덧칠을 하는 동안 꿈터쌤들은 커뮤니티정원 강의를 하셨던 분들을 포함한 여러 분과 같이 정원 만들기에 힘쓰셨다. 지난 번 강의했을 땐 보러온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는데 거의 스무 명 정도 모여서 놀랐다... 나는 간판을 칠하면서 드문드문 구경도 했었는데,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식물을 심기 전, 다 같이 원으로 둘러싼 뒤 준비운동이라고 모두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익살스러웠다ㅋㅋ(한분이 스텝 밟는 게 심상치 않았음...) 그리고 채색작업이 오늘 안에 끝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약간만 더 손보면 마무리가 될 듯하다*</p> <p>베트남 수업에서 '쭈언쭈언'(잡자리 모양의 부리 쪽을 손가락에 올려두면 무게중심이 입 쪽으로 쏠려 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손가락에는 성에 안 차는지 신박한 곳에다 계속 올려두었다;; 콧대나 발가락, 매직펜, 나무 막대, 연필 등 별의별 곳에다 세워보며 거둬 신기해했다.(사실 나도 핸드폰 위에다 세워두고 사진을 찍는 묘기를 보여줬다*) 이윽고 게임까지 한 뒤,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오자 선생님이 오늘이 베트남 수업 마지막이라는 걸 안내하셨다. 나는 베트남 선생님의 소감과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동질감을 느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하루 남은 사람으로써 이별이 남일 같지가 않았다. 그저 내일은 누군가의 생일인 만큼 좋은 날로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생일 파티, 작별 인사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마음		

움직이는 학교 일지

이름	김산아	날짜 활동시간	10:00~19:00
장소	누리꿈터	도움주신 분들	호정쌤, 미애쌤, 윤경쌤, 수경쌤
활동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오전: 손이 많이 닿는 공간, 물건 소독하기.</p> <p>오후: 아이들 맞이(손 소독하고 열 체크, 손 씻게 하기) 혹은 대화하거나 놀아주기, 생일 잔치, 마지막 인사 또는 소감 나누기, 저녁 식사 후 청소</p>		
특이사항			
소감	<p>오전 내내 쌤들이 왜 안 오시나 했더니 생일파티를 위해 장을 보느라 늦는다고 했다. 축복받는 날에 이별이 다가온다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 기뻐할 수도 없고 마냥 섭섭해 할 수도 없는 모호한 날. 그래도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하는 목표를 이뤘고, 작은 일에도 배움과 보람을 얻고 갔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오늘을 그리 슬퍼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p> <p>생일 축하가 끝난 후 모두 앞에서 소감을 말하는데, 아이들 눈에서 "헉.." 이 보이다 보니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내가 말을 마치고서 아이들이 내게 하고픈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와 낮이 익었던 아이들은 여지껏 누나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쌤이라고 불러야하는 상황이 와서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어떤 심정일지 잘 알겠다.) 게다가 누구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난처한 부탁까지...(다행히 호정쌤이 저지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도 받았다! 개인적으로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도 짧다고 느껴서 아이들이 나를 가깝게 바라볼까싶었는데 편지까지 정성스레 써주니 아이들이 세상 이뻐 보였다. 덕분에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p> <p>어쨌든 아주 만족스런 무빙이었다! 늘 무빙을 끝반 친구들과 함께 하다가 혼자자가 되니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그득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꿈터에서의 생활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이제 미숙한 나를 잘 이끌어주신 꿈터쌤들, 여러모로 서툰 내 모습마저 너그러이 받아준 아이들을 추억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리고 보고서랑 발표 준비도... 아무튼 다들 고마웠어요 ♡ 꿈터에 다니는 모두에게 어울리는 가사다 ♪ '모두 다 꽃이야 ♪'</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보고서 준비...		
다음 (내일) 준비할 것 기타			